

“외식업체 연계 소외아동에 도움주고파”

●이은상(남도외식문화개발원 대표원장)

지역색 살린 음식점 건설링...남도 식문화 체계화 앞장 8년째 후원 활동...‘나눔 맛지도’ 통한 기부 활성화 추진

“지역의 특색있는 가게들을 살리고 이들과 연계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은상(64·사진) (남도외식문화개발원(광주 동구 계림동) 대표원장은 호남 음식문화에 비즈니스 시스템을 접목, 남도 음식의 장점을 알리고 구체화해 각 업체에 적합한 형태의 창업 모델을 전수하는 외식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소외 아동 지원을 위해 외식 업체와의 후원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11일 “음식은 전라도’라는 말이 있듯이 호남 어느 곳을 가도 맛집이 많다. 하지만 음식의 유래나 먹는 법 등을 구체화한 음식점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역별로 특색있는 재료

와 음식을 풀어내는 업체가 없어 이를 알리고자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각 지역의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며 음식, 재료, 유래 등 정보를 수집해 지역별 외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이 원장은 “지역 음식은 재료와 요리 방식에 각각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미식 관광 시대’가 급격히 발달했다”며 “남도 음식의 유래부터 먹는 방식 등을 개발해 사람들이 호남지역에 왔을 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지역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별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선배의 권유로 초록우산 광주지역 본부와 인연을 맺었으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



동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눈을 돌리게 됐다. 지난 2014년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한 ‘나눔 맛지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자문 및 외식 업체들을 모아 활동 기반을 조성했다.

“나눔 맛지도”는 광주지역 외식업체 중 나눔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아 지도로 만드는 사업으로 모인 후원금은 지역 내 빈곤 및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이 원장은 “곳곳에 힘든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있다”며 “여럿이 힘을 모으면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지역의 음식점을 알리며 아동을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 구상했다”고 밝혔다.

연계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매월 기부 활동을 펼쳐 지난달까지 약 30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 이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미비한 ‘나눔 맛지도’를 다시 활성화하고 새로운 후원 외식 업체를 모집해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주력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저를 포함해 많은 제자가 남도 지역을 살리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식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임영희 5·18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취임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11일 “영화 ‘양림동 소녀’의 임영희(88·여·사진) 감독이 이달 초 제4대 단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활동에 돌입한 임 단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여성 시민군이자 극단 광대 회원으로 문화 운동을 펼쳤으며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남을 위한 행진곡’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임 단장은 중년에 뇌졸중으로 중증장애를 겪었지만, 투병 생활 중에도 천성의 밝은 에너지로 자신의 생애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영화로 제작했다.

영화 ‘양림동 소녀’는 지난해 전국의 단편영화제에 초청받아 상영되는가 하면 제15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대상, 제24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대상을 받고 제44회 청룡영화상 단편 후보작에 오르기도 했다.

임 단장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이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2021년 민주인권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민주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창단됐다. /주성학기자



주광주中총영사관, ‘여성의 날’ 경제인친선協 초청행사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주광주중총영사관(총영사 꾸지치)이 한국경제인친선협회(회장 문병재) 여성 회원들을 초청, 축하연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졌다.

지난 8일 광주차이나센터에서 진행된 축하행사에서는 여성 회원들이 중국 여성 외교관들과 어울

려 중국 음식만들기 체험, 한국 전통 옷의 멋과 미에 대한 소개 등 문화행사를 통한 교류를 가졌다.

꾸지치 총영사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활동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힘써주고 있다”며 초청된 모든 여성에게 잠미 한 송이씩을 선물했다. /주성학기자



현대삼호重, 목포·영암 협력사 품질지원 교육

현대삼호중공업이 목포·영암지역 협력회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선다.

11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사외협력사 품질지원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목포·영암지역 협력 회사 생산 관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을 통한 품질 실체 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삼호중공업 소속 품질 전문가들이 교육

강사로 나서며 선박 블록의 품질·정도 관리, 의장품 설치 문제점·대책 방안, 품질관리 기법 등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우수자에게는 별도 포상도 예정돼 있다. 심학무 현대삼호중공업 전무는 “협력 회사의 품질은 곧 모기업인 조선사의 원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지역 협력 회사와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동강대-(주)우원SSA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약

동강대학교가 유학 전문 기관과 손을 잡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본격 나선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최근 교내 본관 1층 총장실에서 (주)우원 SSA 서울세종인재개발원(대표 이기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주)우원 SSA 서울세종인재개발원은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유학 국가·학교, 어학수업, 출입국, 입학 및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하고 유학생들의 논문도 지도하고 있다.

동강대는 향후 (주)우원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광주지역 전문대학 중 독점적으로 모집을 홍보하고 면접 지원, 서류 준비, 중도탈락 방지대책 등에 대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동강대는 지난해 한국어학당을 신설, 2024학년도부터 외국인 학생을 선발해 한국어를 지도한다. /김대기기자

동구 총장동 통우회장, 무연고 장례 지원금 기탁

광주 동구는 11일 “이양섭 총장동 통우회장이 관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연고 돌봄이웃 장례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년간 통장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 장모님인 고(故) 정경자 여사의 기일에 맞춰 무연고 이웃 장례를 위한 기부 실천에 동참했다.

이양섭 총장동 통우회장은 “우리 주변에 1인 고립 가구와 독거 어르신 등 가족들과 오랜 기간 단절된 채로 쓸쓸히 생의 마지막을 맞는 이웃들이 많다”며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선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총장동은 취약계층 비중이 매우 높아 복지대상자가 많아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소중한 정성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몸소 실천에 나선 선배 총장동 통우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은정기자

전남도, 하천 재해 예방·복구사업 직무 교육

전남도는 11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시·군 보상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하천 재해 예방·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직무교육을 했다.

매년 늘어나는 편입토지·지장물 보상 업무와 토지 소유자의 높아진 권리의식, 다양한 민원 요구에 대응하고 담당 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보상원에서 보상관리사, 변호사 등을 초빙해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하천 사업 추진 관련 토지 보상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 인정보부터 재결 신청까지의 보상 절차 설명 ▲토지 보상 관련 소송 사례 ▲보상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토지 보상 실무뿐만 아니라, 법률 사례까지 보상 업무 과정에서 부딪히



는 각종 문제점 위주로 진행됐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이 지연됐던 보상 업무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재해복구사업 등 하천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진도경찰,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진도경찰서는 “최근 치안 파트너와 함께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진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행됐으며 진도군청·읍사무소,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초 학생·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방어보행 3원칙(시·다·보·다·걸다)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파트너·유관 기관과 함께 어린이 등 곳곳 통학 지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했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스쿨존



내 운전·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치안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통학로 안전관리로 ‘어린이 중심’ 교통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영광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영광경찰서는 “최근 이틀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광초, 중앙초 정문 앞에서 신학기 등굣길 어린이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됐으며 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안전자회, 시민 경찰 등 15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깨띠, 플래카드, 홍보물 등을 활용,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담양 대전파출소, 공동체 치안 활동 강화

담양경찰서 대전파출소는 “최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파출소는 관내 생활안전협의회, 대전·봉산면 자율방범대(남·여), 대전·봉산 이장단, 녹색어머니회 등 공동체 치안 자문단을 구성해 치안 사례 공유, 주민들의 건의 사항 청취·정책에 반영, 보이소피싱·스미싱의 악성 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오세균 대전파출소장은 “공동체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자문단·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R&D조정실 실장 이창열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안창욱 ▲에너지융합대학 원원장 김윤수